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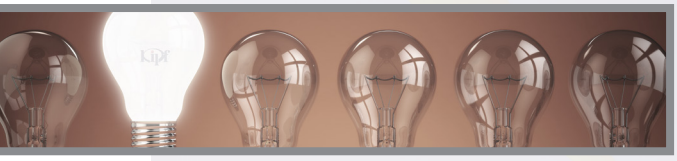
재정패널 소식지

2025년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재정패널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25년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17차년도 조사 결과 06

재정패널 자료 이용 안내 09

재정패널 소식 11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3

2025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31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가구 및 그 가구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표본 종류

• 기존원표본: 5,634가구(1차년도 추출 5,014가구+2차년도 대체추출 620가구)
• 통합표본: 9,318가구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기존원표본 3,948가구+분가가구 815가구+신규원표본 4,555가구)
- 신규원표본: 14차년도에 구축한 신규 표본으로 횡단 및 종단 분석이 가능하고 계속하여 추적 조사하는 가구. 14차년도에 추출한 4,035가구와 15차년도에 대체추출한 520가구로 구성됨

조사 특징

• 납세자의 소득신고 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 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조사 영역

- 가구 조사
  - 가구원 인적 현황,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현황, 가계 지출 내역, 개인이전소득 및 개인이전지출, 복지 현황,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등
- 가구원 조사
  -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공제 현황 등
- 가구원 의식조사 및 부가조사
  - 의식조사의 일부 항목과 부가조사 항목은 격년으로 조사함
  - 사회·정치에 대한 의식, 조세·재정·복지 정책에 대한 의식, 납세 관련 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인식, 개인의 건강과 은퇴에 대한 의식, 부가조사* 등

* (4차년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6차년도) 직업 이력조사, 출산 및 양육 이력조사, (11차년도) 출산 경험 및 관련 정책 인식조사, (12차년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 인식조사, (14차년도) 기본 소득 및 코로나19 관련 의식조사, (15차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 변화, (16차년도) 유기 및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등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17차년도 조사 결과

기존원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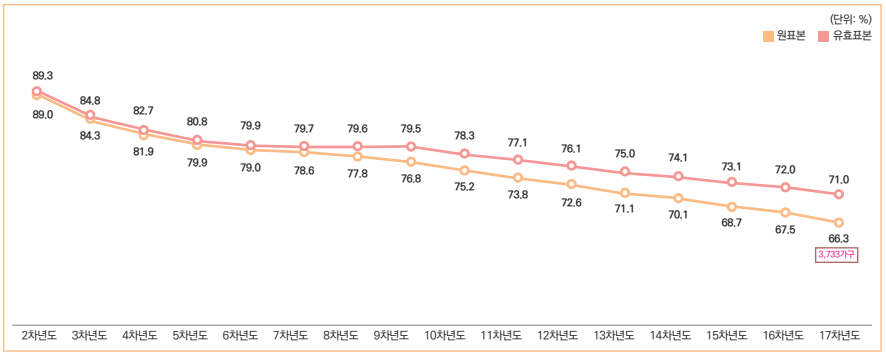
표본 구성

- 기존원표본 가구 수: 5,634가구
- 1차년도에 추출한 5,014가구와 2차년도에 대체추출한 620가구로 구성됨
  - 재정패널 조사는 5,000가구 정도의 표본 크기를 유지하고자 2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 대체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620가구를 원표본으로 추가 구축함
- 지역의 규모에 따라 표본 가구 수를 배정하였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원표본 가구는 전체의 22.7%를 차지함

17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1차 원표본 및 2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66.3%
- 유효표본* 기준 성공률: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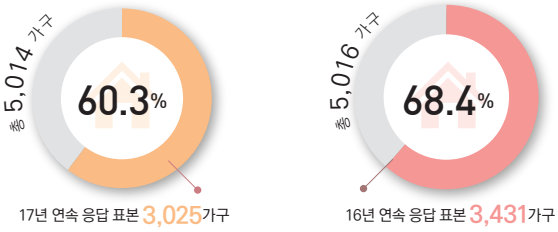
* 기존원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연속 조사 성공률

- 17년 연속 응답 가구: 3,025가구
  -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5,014가구 기준으로 17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3,025가구임
- 16년 연속 응답 가구: 3,431가구
  - 2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5,016가구 기준으로 16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3,431가구임
  - 2차년도 대체표본 구축에 따라 17년, 16년 연속 응답 가구에서 406가구의 차이가 발생함

- 패널조사 특성상 2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이 대거 탈락하며, 이후 조사에서는 패널이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통합표본

표본 구성

- 통합표본 가구 수: 9,318가구
-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기존원표본 3,948가구(1차년도 추출 3,480가구+2차년도 대체추출 468가구)와 분가가구 815가구, 그리고 신규원표본 4,555가구(14차년도 추출 4,035가구+15차년도 대체추출 520가구)로 구성됨
  - 재정패널 조사는 10년 이상 동일한 원표본을 추적 조사하면서 발생하는 표본의 마모 문제와 대표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14차년도에 약 4,000가구를 신규원표본으로 추가 추출함
  - 15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 대체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520가구를 신규원표본으로 추가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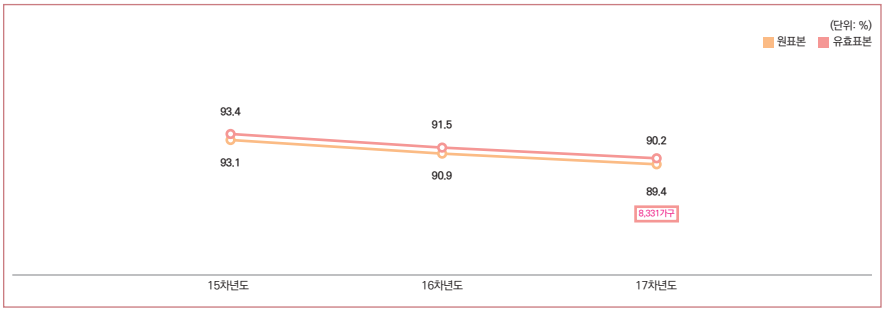
17차년도 기준 조사 성공률

- 원표본(1차 원표본+2차 대체표본+분가표본+14차 신규원표본+15차 대체표본) 기준 성공률: 89.4%
- 유효표본* 기준 성공률: 90.2%

* 통합표본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사망, 해외이민 등)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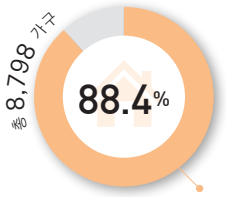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17차년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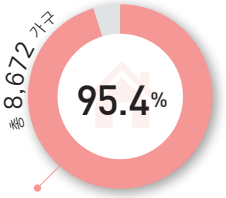


▸ 연속 조사 성공률

- 4년 연속 응답 가구: 7,779가구
  - 14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8,798가구 기준으로 4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7,779가구임
- 3년 연속 응답 가구: 8,271가구
  - 1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8,672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응답한 가구는 8,271가구임
  - 15차년도 대체표본 구축에 따라 3년, 2년 연속 응답 가구에서 492가구의 차이가 발생함



4년 연속 응답 표본 7,779가구



3년 연속 응답 표본 8,271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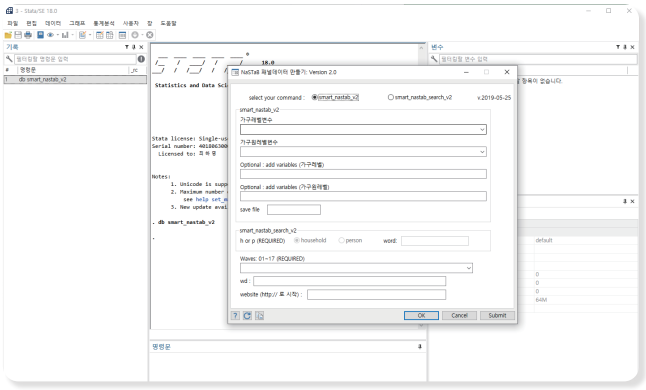
재정패널 자료 이용 안내

공식 자료

- 제공 범위: 1~16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유저가이드, 통합코드북, 통합설문지
- 제공 방식: 재정패널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재정패널 홈페이지 ▶ 데이터 ▶ 데이터(다운로드)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

- 데이터 가공용 STATA 프로그램
  - 재정패널 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함
- 프로그램 실행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Smart NaSTaB 다운로드 방법
  - 재정패널 홈페이지 ▶ 데이터 ▶ Smart NaSTaB ▶ 16차년도 Smart NaSTaB(다운로드)
- 프로그램 사용 시 안내사항
  - STATA 13.0 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실행 화면



데이터 활용안내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제파일 제공
  - 재정패널 자료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 STATA 및 R 예제파일 첨부
  -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 병합 방법, 패널 데이터 가공 방법 등 안내
- 예제파일 다운로드 방법
  - 재정패널 홈페이지 ▶ 설명자료 ▶ 데이터 활용안내(다운로드)

재정패널 홈페이지

- 주소: https://www.kipf.re.kr/panel/
- 재정패널 홈페이지 화면

재정패널 소식

재정패널 이슈

- 18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 2025년 11월, 18차년도 재정패널 현장 조사 완료
- 17차년도 재정패널 공식 자료
  - 2025년 12월 5일(금), 17차 재정패널 공식데이터 공개 예정
- 재정패널 영문 자료 신규 공개
  - 제공 내용: 데이터, 통합설문지, 통합코드북, 유저가이드
  -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

행사 소식

-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개최 완료
  -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14:00~17: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4, 5
  - 자료집 다운로드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보고서 ▶ 학술대회 발표집(다운로드)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 요

|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14:00~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4,5

| 문 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 재정패널팀

구분		주제	발표	토론
세션 Ⅰ	사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투자 성향 결정 요인 분석	최인수	조민영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경배	홍병진
	3	주택연금의 미시적 가입 의사결정의 분석	전병욱	김문정
세션 Ⅱ	사회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부모의존 성인자녀 현상의 원인과 효과연구	오호영	강신혁
	2	소득 격차 인식과 정부 역할 기대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혜자 김혜진 백승주	최인희
	3	가계의 소득유형 및 소비유형별 교육비 영향 요인 분석	권초아	이경훈
세션 Ⅲ	사회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분석 -재정패널자료 기반 로지스틱 회귀 및 DID 분석-	송채은 최민지	강지원
	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소득 계층별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나영	최정재
	3	주 52시간제 도입이 근로자 가구에 미친 영향 분석	이지은 송헌재	김보민
세션 Ⅳ	사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1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홍우형	박정흠
	2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신동협 송헌재	전병힐
	3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 공공재 기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연령 및 직업 이질성을 중심으로	강성훈	박벼리
대학원생 우수논문	사회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우수	일시적인 조세유인 확대와 기부행태	박동규	김정환
	장려	청년층의 위험자산 선호가 가계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	권혁준 이건희 허성혁	
	장려	문화 바우처의 문화비 지출 효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부터의 증거	이창수	
	장려	Weight of family: Labor supply responses to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정재희 한희원	

» I –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투자 성향 결정 요인 분석

최인수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연구원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법과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활용하여 가계의 투자성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가구가 가상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기반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하였다. 기계학습 모형에 해당하는 XGBoost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실제로 투자성향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로 꼽히며 로이드 샤플리의 샤플리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기법의 평균 절대 SHAP값을 활용하여 예측 모형에 대한 변수별 기여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행태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적용한 투자성향 분석의 가능성을 모색한 예비적 시도로, 향후 보다 다양한 변수와 분석 설계를 통해 관련 주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경배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본 연구는 2022년 「소득세법」 제59조3의 개정으로 50세 미만 거주자도 50세 이상 거주자와 같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가한 것이 연금계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자료(제15차~제17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패널 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높을 때 연금계좌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입한도나 세액공제금액이 높을수록 연금계좌에 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모형과 PSM-DID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의 변화 전후 모두 50세 이하 그룹이 50세 이상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게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점과 연령에 대한 교차항 추정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제도 확대가 연금계좌 납입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0세 미만 그룹을 연령별로 20, 30, 40대로 세분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2023년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증가하였으나 저연령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고려할 때, 저연령층도 꾸준히 사적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외에 다른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제도가 확대된 이후 단일연도 자료만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3

주택연금의 미시적 가입 의사결정의 분석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가입 현황과 함께 다양한 측면의 가구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측면의 주택연금의 가입 의사결정을 실증분석하였다.

주택연금의 가입 상태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최적의사결정 및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을 반영한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 중에서 기본적인 연금의 3층 구조를 통한 소득의 보전액, 가구주의 기대여명, 가입대상주택의 가격 및 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상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고령층의 잠재적 소득원천인 주택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대체적으로 합리적 가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적·주관적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임의적 판단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설명변수에서 확인되는 주택연금의 가입과 관련한 불충분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낮은 가입비율과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구 자산의 주택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택연금의 이용유인과 제약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가구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유동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후자의 결과가 더욱 일반적이고, 이로 인한 선호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회적 관심과 불완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I-1

부모의존 성인자녀 현상의 원인과 효과연구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층의 부모의존, 이른바 '캥거루족'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정, 주거비 상승, 고학력화, 가족주의적 정서 등 복합적 요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14차~제17차(2020~2023년) 「재정패널(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립 지연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자산이 높을수록 자녀의 캥거루족일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며, 이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독립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캥거루족 경험은 자녀의 향후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및 부모 양측 모두의 행복도를 저하시키는 심리·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캥거루족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닌 가족경제, 사회구조,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며, 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2

소득 격차 인식과 정부 역할 기대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부모의 계층 간 소득 격차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 제9차~제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의 사교육비 정보를 추출하고, 부모의 사회·정치 인식 자료와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부모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과 회의감에 따른 인식이 사교육을 통한 보완 또는 회피 전략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2015년 대비 2023년의 변화에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평균 지출이 증가하고 고지출 구간의 비중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분포적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 간 격차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불안이 점차 구조적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이는 공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정책 체감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더라도 현실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계층 격차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격차 인식에서 비롯되는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충하거나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은 계층 격차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사교육 의존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준다. 사교육 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비전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책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I-3

가계의 소득유형 및 소비유형별 교육비 영향 요인 분석

권초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육비 투자에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교육이 계층의 이동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역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경제·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교육비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간의 관계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경향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계가 교육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유형과 소비유형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육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가구주의 최종 학력 및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연령이 학령기에 해당할수록 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생계소비, 사회적소비, 주거소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구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계층 재생산 현상을 반영하며,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구조적 요인(거주지역, 자녀연령, 가구주 최종학력,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에는 복지소득이 교육비 지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소득의 확대는 공교육 내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교육복지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면 가계에서 교육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성 확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Ⅲ-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분석 -재정패널자료 기반 로지스틱 회귀 및 DID 분석-

송채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최민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지원금 정책이 실제 가구의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분석, 조건부 고정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정효과 기반 이중차분(DID) 분석이 활용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정책을 기준으로 정책 도입 전후의 출산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출산지원금의 인과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지원금 수령 여부는 출산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정책 수혜 가구의 출산 확률은 평균 3.34%p 상승하였다. 이는 금전적 유인이 출산 결정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종단자료를 기반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실증연구로서, 향후 정책의 설계 및 평가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Ⅲ-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소득 계층별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나영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의 에너지세 실질 부담률이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공적 이전이 조세 부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 분위와 정부지원 수급 여부 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였으며, 분포 전반의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 조건부 분위 분석(Quantile Regression)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세는 구조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보이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은 저소득 분위에서 일정 부분 부담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에너지세 부담률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정책 타겟팅의 정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Ⅲ-3

주 52시간제 도입이 근로자 가구에 미친 영향 분석

이지은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NaSTaB)를 이용해 주 52시간제 도입 후 만 60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를 추정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종사자 규모별 순차 도입된 시기와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처치군과 비교군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가구 지출을 건강과 여가생활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건강 지표인 가구 의료비 지출, 주류 및 담배소비 지출과 외식비, 문화생활비, 여행비 등 여가생활 지출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가구소득을 재원별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후 처치군에서 두 형태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근로시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제를 통해 기대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본 연구는 현행보다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주 52시간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Ⅳ-1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홍우형 동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2018년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 충격으로 간주하고, 재정패널 제10차~제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가 가구의 문화비 지출 행태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2018년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은 가구의 문화비 지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COVID-19의 효과와 사후소득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모두 배제한 분석에서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한 가구의 문화비 지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2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신동협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 저축, 순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총소비지출과 월평균 저축액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순금융자산은 평균 격차는 존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 항목별로는 식료품비에서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려금이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소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신비에서도 수급 가구의 지출 확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교통비는 수급 여부에 따른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현금 이전을 넘어 저소득층 가계의 소비 안정과 재정 여력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제도 설계 시 가계의 지출 구조와 자산 형성 경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Ⅳ-3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 공공재 기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연령 및 직업 이질성을 중심으로

강성훈 한양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공공재 기부 행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0~2023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부 여부는 패널 로짓 모형, 기부 금액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코로나19 관련 외부충격 요인, 사회경제 요인, 그리고 심리·태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진자 수 증가는 특히 비고령층 자영업자의 기부 참여를 유의하게 늘렸으나, 기부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사망자 수 증가는 고령층에서 기부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비고령층 근로소득자는 참여를 늘리고 자영업자는 참여를 줄이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연령과 소득은 기부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심리·태도 요인 중 정부 신뢰는 모든 집단에서 기부 참여를 높였지만, 기부 금액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사회적 신뢰는 기부 참여에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부 금액에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자영업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간선호는 기부 참여를 촉진했지만 기부 금액은 줄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험태도 역시 기부 참여를 늘렸으나 금액은 감소시켰다. 재분배정책 선호는 참여와 금액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상황에서 심리·태도 요인이 기부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전통적 사회경제 변수보다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이 크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5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 목록입니다.

2025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정책 및 규제가 경제주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지형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근로유인 효과를 중심으로	박근우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세무학
Multimodal AI와 데이터 생성기법을 활용한 국가승인통계의 격자단위 기반 데이터 증폭	이동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과
투자목적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가계 자산 및 부채특성 분석	김정훈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종교를 가진 시민의 종교적 기부와 세속적 기부에 관한 연구	손창균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조세 공평성 인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	정시연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학술지논문]

제목	저자	비고
농업과 비농업 소득 격차와 기회의 불평등 분석	김남훈	농업경영정책연구, 51(3), 439~456.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 분석	김남훈	비즈니스융복합연구, 10(1), 111~117.
은퇴 기간의 예상과 실제	김대환 정창연 이재희 남기훈	보험금융연구, 35(3), 75~105.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세제지원이 주택보유에 미치는 효과의 비교 분석	김성태 조민혜 임병인	토지주택연구, 15(4), 111~124.
Intera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and Housing on Individual Pension Purchase	김소연	사회과학연구, 35(4), 247~268.
소득격차와 고용안정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김승회 니암수렌	전문경영인연구, 28(3), 67~84.
기초연금의 소득효과에 대한 재평가: 일자리 안정성의 영향에 주목하여	김윤영	노인복지연구, 79(4), 171~208.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구성과 조절효과 분석: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중심으로	김종찬 최창용	한국정책연구, 25(2), 23~46.
가구 내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민인식	조사연구, 26(3), 1~25.
고령층은 정말 달라졌나?: 최근 10년 시계열 데이터로 본 '액티브 시니어'의 소득·소비 및 뉴스 미디어 이용 변화	박대근 박명호 박노일	한국소통학보, 24(2), 169~215.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박명호	재정정책논집, 27(1), 31~59.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태 정상훈 이혜영	세무학연구, 41(4), 203~234.
'눔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소득 수준과 복지태도의 유형을 중심으로	변영주 고길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5(4), 125~153.
소득세의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성명재	재정학연구, 17(4), 95~139.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5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제목	저자	비고
복지수혜 경험과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	송헌재 고은비 전병힐	한국자료분석학회, 26(6), 1939~1951.
코로나19 발생 전후 복지수준 및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집단·계층별 변화를 중심으로	윤성주	재정정책논집, 26(3), 3~39.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관광수요 영향 요인 분석	이순학	호텔관광연구, 27(2), 51~64.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성향이 납세자의 교환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한 신정희 이혜영	세무학연구, 41(3), 135~158.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예지 조형태 차상권	세무와 회계저널, 25(6), 47~73.
한부모 가족과 복지 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 양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	이혜영 박성태	입법과 정책, 17(1), 63~91.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상향 효과분석: 50대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정원석	보험학회지, 141, 93~118.
건강위험과 예비적 저축 동기: 재정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최지혜 백경호	한국경제연구, 42(4), 55~82.
Does tax policy matter for donating behaviour? evidence from the korean tax reform	홍우형 강성훈	*Applied Economics Letters*, 1~6.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재정패널 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다음 호부터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재정패널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발행하며, 인쇄본 제작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책자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5. 11.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 재정패널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411
홈페이지 : www.kipf.re.kr/panel/